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92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5.14~2026.05.20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9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4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미래, 등록, 청년, 생활, 지지
경제·관광	항공, 관광객, 성장, 여행, 중소기업
지역·사회	교사, 구조, 범죄, 예방, 학생

※ 분석 기간 : 26.05.14.~26.05.20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 미래 비전 4대 전략 발표 - 4대 과학기술원 공동캠퍼스 유치 공약 -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구조 대전환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무투표 당선 - 비례대표 후보 허위 당적 등록 논란 - 제9회 지방선거 100명 후보 등록 완료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청년기본소득 및 희망 패키지 - 청년 유출 방지 및 제주형 청년 기본소득 - 타 시도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전입장려금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생활민원 현장공개 시스템 도입 - 지역 맞춤형 생활 밀착 인프라 확충 -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복합 시설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단체의 공식 지지 선언 릴레이 - 여론조사 지지도 결과 및 선거 판세 - 국정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의 여론 대립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출범과 제주공항 개편 - 국내선 항공 좌석 감소와 항공료 급등 우려 - 제주항공 수송객 1위 달성과 노선 효율화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가 여파에 따른 제주 관광객 소비 위축 - 외국인 관광객 약국 중심 K-뷰티 소비 급증 - 근거리 이점 활용한 중화권 대상 마케팅 강화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관광개발 카지노·호텔 동반 호조로 역대급 성장 - 1분기 지역 수출 급증 속 내수 서비스업 지표 부진 - 조수입 증가세 뚜렷한 제주산 블루베리 유망 작물 육성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와 여행 결합한 체류형 러닝 위크 관광 운영 - 일본 큐슈 지역 방한 수요 타깃 고품격 여행상품 개발 - 관광객 체류 기간 확대를 위한 마을 여행 및 워케이션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 공동센터 조성 -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 체계적 조직화 및 협업 기반 - 중장년 중소기업 노동자 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원 혜택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故 현승준 교사 1주기 추모식 갈등 - 초등학생의 상담교사 무차별 폭행 - 교육감 후보들의 교권 보호 공약 발표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방산 무단 입산 외국인 관광객 구조 - 뇌졸중 의심 해상 조업 선원 긴급 구조 - 우도 발생 응급환자 해경 야간 이송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 귀가 중인 10대 소녀 납치 미수범 검거 - 위조 신용카드로 금팔찌 구매한 중국인 구속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우정청 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 학생 안전 위한 통학로 특별 치안 활동 - 여름철 병원성 비브리오균 식중독 감시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클래스 내 상담교사 무차별 폭행 사건 - 하곳길 10대 여학생 납치 시도 사건 - 통학로 및 학원가 주변 특별 치안 활동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5월 14일~5월 20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1,098건임
 - 정치·행정 분야 641건, 경제·관광 152건, 지역·사회 305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미래, 등록, 청년, 생활, 지지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 미래 비전 4대 전략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서귀포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 농어촌 고부가가치 모델 실현, 글로벌 교육 및 MICE 산업 거점화, 신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거점 조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서귀포 미래 비전 4대 전략' 정책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 인공지능과 바이오, 해양치유 및 해양레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기술을 결합하여 서귀포만의 독자적인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한편, 서귀포
-------	----	---

정치·행정		<p>향을 제주 농수산물 물류 전담 특화 항만으로 효율화하여 지역의 분산된 물류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갈 구체적인 이행 계획임.</p> <p>- 4대 과학기술원 공동캠퍼스 유치 공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당 양영수 제주도의회의원 후보는 제주의 미래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지역 특화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프라와 충분한 부지면적 및 지리적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는 제주국제대학교 부지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던 '4대 과학기술원 공동캠퍼스'를 반드시 아라동 지역에 안착시키겠다는 핵심 정책 공약을 발표함. · 제주국제대학교 부지에 4대 과학기술원 공동캠퍼스가 성공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인근에 위치한 제주대학교와 첨단과학기술단지, 그리고 제주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을 유기적으로 잇는 강력하고 혁신적인 '산·학·연'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아라동이 제주 미래 과학기술 발전과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강력하게 전망함. <p>-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구조 대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는 청년 인구 유출 현상 심화와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가 현재 제주가 직면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진단하며, 기존의 관광 및 건설 산업 중심의 편중된 경제 구조에서 과감히 벗어나 인공지능(AI)과 청정에너지 기반의 미래산업 중심으로 제주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완전히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함. · 이러한 경제 구조 혁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AI 데이터센터 제주 유치, 과학기술원 설립 추진, 10GW 규모의 대대적인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구축 등 대규모 미래산업 육성 핵심 전략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정규직 중심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고 제주도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전진기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중장기적 비전임.
	등록	<p>- 6.3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무투표 당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제주도의회의원 32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을 포함한 총 8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 1명만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치러진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 수를 기록한 이례적인 결과임. ·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에 등록된 단독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 운동이 전면 제한되고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자동 결정되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정당한 참정권과 정책 검증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과 함께 거대 정당의 공천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역 정가의 목소리가 커짐. <p>- 비례대표 후보 허위 당적 등록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고민정 후보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과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당적을 동시에 복수로 보유하고 있다는 다중 당적 사실을 공식 통보받으면서, 본인의 명시

		<p>적 동의 없이 특정 정당에 이름이 불법적으로 올라간 전형적인 유령당원 조작 범죄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라 지역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어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 후보 측과 진보당은 본인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철저히 확인한 결과 타 정당에 당비를 납부한 기록이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박하며, 이는 선거철 조직 관리를 위한 명의 도용과 명백한 허위 당적 등록 사건으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공식적인 경찰 고발 및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모든 가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함. <p>- 제9회 지방선거 100명 후보 등록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틀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최종적으로 마감한 결과, 도지사 선거 3명, 교육감 선거 3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2명, 도의원 지역구 64명 및 정당 비례대표 28명 등 도합 총 100명의 후보자가 선거구별 정식 등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본선 총력 레이스에 돌입함. · 등록 절차를 마친 전체 100명의 후보자 가운데 무려 36명이 최소 1건 이상의 전과 범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음주운전 범죄 혐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유권자들의 각별하고 철저한 후보 검증이 요구되고, 모든 출마 후보자들의 상세한 재산, 병역, 납세 실적, 입후보 경력 등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됨.
정치·행정	청년	<p>- 서귀포시 청년기본소득 및 희망 패키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지역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경제적 고충을 조속히 해결하고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 연령대의 지역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혁신적인 청년 및 청소년 희망 패키지 핵심 정책 공약을 공식 발표함. · 또한 사회 초년생들이 학자금 대출 채무 상황에 대한 무거운 부담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서귀포 지역 내 청년 창업 인프라와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청년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굳건히 마련할 계획임. <p>- 청년 유출 방지 및 제주형 청년 기본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는 사회 진입기에 놓인 2030 청년층의 심각한 인구 유출 현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소득 공백을 실질적으로 채워주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주거와 금융,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하나로 유기적으로 촘촘히 연결한 강력한 자립 패키지 성격의 '제주형 청년 기본소득'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기본사회 무지개 공약을 제시함. · 나아가 도내 청년들의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비스업 중심의 기존 지역 산업구조를 완전히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첨단 인공지능(AI) 및 청정에너지 자원 등 미래지향적 신산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굳건히 뿌리 내리고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근로 환경을 집중 조성할 방침임.

		<p>- 타 시도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전입장려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 거주한 이력이 전혀 없는 타 시도 청년들이 제주로 새롭게 전입할 경우 10만원을 지급하고, 과거 5년 이상 제주에 거주했던 청년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환 청년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제주형 청년 전입촉하장려금인 '탐라청년출발패키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청년 인구 유입을 장려함. · 해당 장려금 지원 사업은 신청 접수 시행 불과 두 달여 만에 수천 건 이상의 신청 서류가 폭주하며 당초 배정된 전체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이 매우 빠르게 집행될 정도로 도내외 청년층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제주 지역의 20대 청년 순유출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청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정치·행정	생활	<p>- 제주 생활민원 현장공개 시스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소속 양윤영 제주도지사 후보는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겪고 있는 쓰레기 무단 투기 처리, 심각한 도심 주차난, 보행 불편, 도로 파손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불편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사진 및 위치정보 기반의 첨단 '제주 생활민원 현장공개 시스템'을 행정 전면에 도입하겠다는 매우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발표함. · 해당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최초 민원 접수부터 담당 부서 배정, 세부적인 처리 진행 상황, 그리고 최종적인 처리 완료 결과까지 모든 행정 과정을 도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전면 공개함으로써, 생활 불편 문제에 대한 신속한 현장 해결은 물론 도민들의 답답함을 크게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강력히 전망됨. <p>- 지역 맞춤형 생활 밀착 인프라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후보, 국민의힘 강경문 후보 등 주요 지역구 도의원 출마 후보들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네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노후 공중화장실 시설 전면 개선 등을 포함한 철저한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 공약을 이번 선거운동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전면에 내세우며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함. · 특히 삼무공원과 남조봉공원 등 도심 내 주요 휴식 공간을 단순한 녹지 기능을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편안한 휴식, 교통 복지, 그리고 택배 및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전용 쉼터 기능까지 모두 아우르는 다목적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으로 전면 재조성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 인프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임. <p>-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복합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소속 고민수 제주도의원의원 후보는 노형동 등 주요 도심 밀집 지역 주민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극심한 만성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조속히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 골목 상권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심형 전용 주차

		<p>타워 빌딩 신규 설립과 주요 근린공원 지하 공간을 적극 활용한 대규모 생활 밀착형 주차 인프라 구축 공약을 비중 있게 제안하며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근린공원의 지상 교육 및 문화 생태 환경은 안전하게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미활용되는 지하 공간을 대규모 공영주차장이나 실내 수영장 등 다목적 복합 생활 체육 시설로 대폭 개조함으로써,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고질적인 주차 불편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도민들의 일상 속 문화 체육 향유 기회까지 함께 증진시키는 일석이조의 실질적인 긍정적 효과를 핵심 목표로 함.
정치·행정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단체의 공식 지지 선언 릴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제주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와 주요 직능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과 정책적 지향점에 가장 잘 부합하는 특정 출마 후보들을 향하여 릴레이 형식의 공식적인 공개 지지 선언을 잇달아 적극 발표하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각 선거 캠프 진영 간의 세력 확산 및 우호적인 지역 여론 형성 경쟁이 갈수록 더욱 치열하고 뜨겁게 전개됨. ·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서귀포여성 1000인 모임 등 주요 단체들은 평등 교육 및 인권 보장 가치를 깊이 공감하며 고의숙 교육감 후보에 대한 굳건하고 열렬한 공개 지지를 공식 표명하였으며, 제주도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역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정책 역량을 높게 평가하며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를 지역 경제 회복의 가장 확실한 책임자로 꼽으며 강력하게 지지함. - 여론조사 지지도 결과 및 선거 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 주요 언론 5사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실시한 제3차 민심 여론조사 공식 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후보가 55%의 압도적이고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21%를 얻는 데 그친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아주 큰 격차로 따돌리고 1위 선두 자리를 굳건하게 확고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객관적인 통계 지표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됨. · 치열한 양상을 보이는 도교육감 선거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광수 후보가 전체 응답자 중 33%의 지지를 얻어 25%의 지지를 받은 고의숙 후보와 양보 없는 선두 경쟁을 팽팽하게 벌이고 있으며, 부동산과 무당층의 비율이 여전히 2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들 중도 스윙보터 유권자들의 최종 표심 향방이 전체 선거 당락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로 지목됨. - 국정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의 여론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 현 정부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국정 안정론' 지지 여론이 현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강력하게 심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을 수치상으로 매우 크게 앞지르며 전반

정치·행정		<p>적으로 우세한 여론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뚜렷하게 나타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긍정적 지지 여론의 거대한 흐름은 40대와 50대 중장년층 연령대 및 진보 성향 유권자 층에서 특히 더욱 강하고 결속력 있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재명 현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 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75%라는 매우 높은 수치에 달하는 현상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여당 소속 출마 후보자들의 높은 지지율을 강력하게 견인하는 핵심적인 정치적 동력으로 뚜렷하게 작용함.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항공, 관광객, 성장, 여행, 중소기업**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항공	<p>-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출범과 제주공항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가 이사회 승인과 본계약 체결을 완료하며 오는 12월 17일 자로 '통합 대한항공'을 공식 출범할 예정임. 자본금이 대폭 증가하며,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 표준화 및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통합 항공사 출범 일정에 맞춰 제주국제공항 내부의 대대적인 조직 및 카운터 통합 작업이 연말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기존 3번 게이트 카운터에서 철수해 1번 게이트 아시아나항공 카운터로 이동하며, 여유 공간은 타 저비
-------	----	--

	항공	<p>용항공사들이 차지하게 되고 여객 라운지 역시 기존 아시아나항공 시설을 흡수해 추가 운영함.</p> <p>- 국내선 항공 좌석 감소와 항공료 급등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으로 하계운항 기간부터 김포-제주 노선의 주요 슬롯이 저비용항공사로 재배분되며, 중소형 기종 운용에 따라 국내선 항공기 공급 좌석이 크게 감소한 상황임.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으로 일부 저비용항공사가 비운항을 결정해 4월과 5월 연이어 수백 편이 결항됨. · 항공기 공급 좌석 감소와 함께 편도 기준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기존 7700원에서 3만4100원으로 4배 이상 폭등하면서 관광객 및 도민들의 항공권 확보가 매우 어려워짐. 좌석은 줄고 비용이 치솟는 복합 악재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급석 확대를 요청하고 항공사 증편 협의를 추진함. <p>- 제주항공 수송객 1위 달성과 노선 효율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항공이 고유가와 고환율이라는 불리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통해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월간 수송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적 저비용항공사 중 수송객 1위를 기록함. 전체 탑승률 역시 동종 업계 평균을 상회하며 견조한 외형 성장세와 시장 경쟁력을 확고히 입증함. · 증가하는 여행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천-오사카 노선과 김포-제주 노선을 전략적으로 증편 운항하고, 신규 취항을 모색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적극 도모함. 동시에 외부 변수에 따른 비용 부담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종속회사의 호텔 자산을 매각하고 보유 중인 일부 항공기를 처분하는 등 고강도 경영 효율화 작업도 병행함.
경제·관광	관광객	<p>- 고유가 여파에 따른 제주 관광객 소비 위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4월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 수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며 실질적인 씬씀이를 줄이는 현상이 뚜렷함.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1일 평균 카드 이용액은 20% 이상 급감해 늘어난 방문객 수가 지역 내 매출 증대로 직결되지 않는 실정임. · 이러한 소비 위축은 중동 사태에 따른 고물가 및 고유가 지속, 항공 유류할증료 인상 등 전반적인 여행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현지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임. 이에 대응하여 제주도는 관광시장 위축을 막고자 체류 관광객에게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공공플랫폼을 통한 여행 상품 할인 행사를 병행하며 소비 진작을 도모함. <p>- 외국인 관광객 약국 중심 K-뷰티 소비 급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골든위크와 중화권 노동절이 겹친 황금연휴 기간 동안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결제액이 증가한 가운데, 약국에서의 결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3%나 폭증하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함. 이는 K-뷰티 열풍에 힘입어 기능성 화장품, 흉터 연고, 영양제 등을 약국에서 구매하는 새로운 쇼핑 트렌드가 적극 반영된 것임. ·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의 약국 결제 증가율이 3년 연속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약국이 단순한 의료 목적을 넘어 건강과 뷰티 쇼핑을 위한 핵심

	<p>관광객</p>	<p>채널로 굳건히 자리 잡음.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7000원대로 소액 결제가 주를 이루며, 의료 및 피부과 관련 결제액 증가와 더불어 제과와 편의점 업종 등에서도 다양한 소비가 확대되는 추세임.</p> <p>- 근거리 이점 활용한 중화권 대상 마케팅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유가 상승으로 장거리 여행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커지자, 제주도는 지리적 근거리 접근성이라는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핵심 외국인 관광 시장인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마케팅에 박차를 가함. 대만 타이베이 등 현지 문화 공간 로드쇼에 참가해 MZ세대를 겨냥한 감귤 디저트 체험과 전통주 시음 등 차별화된 미식 콘텐츠를 집중 홍보함. · 향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로드쇼에도 연이어 참가해 고소득 MZ세대와 가족 단위 여행객을 타깃으로 웰니스 및 체류형 관광 상품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계획임. 이와 함께 최근 신규 취향한 직항 노선 활성화를 위해 '부담 없이 언제든 떠나는 주말 나들이'를 콘셉트로 한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며 홍콩 지역 여행객까지 폭넓게 공략함.
<p>경제·관광</p>	<p>성장</p>	<p>- 롯데관광개발 카지노·호텔 동반 호조로 역대급 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이 올해 1분기 카지노 이용객 수의 큰 폭 증가와 호텔 객실 판매율 상승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인 156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룸.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21% 급증한 288억 원을 달성하며 이익 창출력이 대폭 개선된 실적을 보임. · 중동 정세 불안과 연중 대표적인 비수기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외국인 투숙 비중이 크게 늘고, 카지노 부문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테이블 홀드율이 19.7%를 기록해 글로벌 리조트 수준에 근접하게 상승함. 매출 성장에 비해 영업비용 증가는 최소화됨에 따라 이익이 가속되는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어, 연간 결산 실적의 대대적인 퀀텀 점프가 기대되는 상황임. <p>- 1분기 지역 수출 급증 속 내수 서비스업 지표 부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1분기 제주지역 수출액이 반도체 업황 강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58.8% 급증하며 외형적인 성장세를 견인했으며, 기타 일반기계류 등의 품목에서도 두드러진 수출 호조를 보임. 소매 판매 실적 역시 대형마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면세점과 전문소매점의 선전으로 12개 분기 만에 전국 평균을 웃도는 6.0% 증가율로 의미 있는 반등에 성공함. · 이와 대조적으로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부동산 및 정보통신 업종의 침체 폭이 커지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5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등, 내수 경기의 실질적인 회복 흐름은 매우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냄.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마저 음료 및 전기·가스 업종 부진으로 뒷걸음질 쳤고,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소비 회복세와 산업별 부진이 혼재된 불균형 양상임. <p>- 조수입 증가세 뚜렷한 제주산 블루베리 유망 작물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의 감귤 중심 과수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대체 소득 작물로 육성 중인 제주산 블루베리가 재배면적과 생산량 확대를 거듭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굳건한 입지를 다지고 있음. 과육이 단단하고 식감과 당도가 우수하며 향산화 기능성까지 갖춰 소비자 선호도가 크게 상승해 작년 기준 조수입이 약 121억 원 규모에 달하는 뛰어난 성과를 냄.

경제·관광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에서는 고품질 생과 출하를 위한 철저한 재배 관리 및 선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수도권 소비자 공약을 위해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시식 및 판촉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함. 현장에서 준비 물량이 조기 소진되고 높은 만족도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등 좋은 반응을 얻으며 향후 제주 농업의 핵심 주력 소득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잠재력을 확인함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와 여행 결합한 체류형 러닝 워크 관광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최근 급증하는 아웃도어 관광 수요에 발맞춰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주의 해안길, 오름, 마을길을 직접 달리며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제주 러닝 워크' 콘텐츠를 적극 운영함. 이는 단순한 일회성 스포츠 이벤트를 뛰어넘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로컬 상권을 자연스럽게 잇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로 기획됨. · 마라톤 축제 및 오름 트레일런과 연계한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열리며, 참가자들이 지정된 코스를 달리며 로컬 상점에서 인증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 특히 섬 속의 섬인 우도와 마라도를 배경으로 한 특화된 러닝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여름철을 맞은 MZ세대와 개별 여행객에게 이색적인 로컬 경험을 폭넓게 제공할 예정임. - 일본 큐슈 지역 방한 수요 타깃 고품격 여행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한 기초 수요가 탄탄한 일본 후쿠오카 지역의 주요 여행사 상품기획자들을 특별 초청하여 제주의 세계적 문화 자원을 심도 있게 체험하게 하는 프리미엄 여행 상품 개발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함.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새롭게 재개된 직항 노선을 더욱 활성화하고, 일본 소비자에게 제주의 진화된 관광 콘텐츠 매력을 각인시켜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자 기획됨. · 초청된 팸투어단은 세계자연유산센터와 성산일출봉 등을 시찰하고 해녀 문화 산책, 동백 비누 만들기, 최고급 웰니스 관광지 방문 등 일본 시니어와 특화 시장이 선호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점검함. 현지 여행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향후 3개월 이내에 팸투어 체험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된 고부가가치 신규 여행 상품이 실제 출시될 수 있도록 꼼꼼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임. - 관광객 체류 기간 확대를 위한 마을 여행 및 워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단순히 방문객 수치에 의존하는 기존의 양적 성장을 벗어나, 여행객이 얼마나 오래 머물며 지역 내 실질적인 소비를 창출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질적 관광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수 농촌체험마을 등을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활성화하고 '카름스테이'라는 지역 특화 마을 여행 브랜드를 통해 체류형 관광의 기반을 튼튼히 다짐. · 청년 인구 유입과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읍면지역 숙박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배움 여행인 연계이션을 진행하고, 도외 벤처캐피탈과 지역 기업을 잇는 워케이션 프로그램, 농촌에 머물며 일하는 농케이션 등을 집중 추진함. 향후 부서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 및 관광진흥기금 연계 등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체류형 여행 규모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광 생태계를 확립할 방침임.

<p>경제·관광</p>	<p>중소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 공동센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적인 대형 창고 확보가 어려운 도내 영세 제조업체와 농수축산 가공 중소기업이 보관부터 출하까지 한 거점에서 통합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공사가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며 올 하반기 본격 운영을 앞둠. 국비와 도비 258억 원을 대규모로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어 섬 지역 특유의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으로 기대됨. · 해당 최신 물류센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물류 방식으로 설계되어, 입출고와 재고를 실시간 관리하는 창고관리시스템과 배차 경로를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화하는 운송관리시스템이 전면 도입됨.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공기관 대행 방식으로 전반적인 운영을 맡으며, 공유물류 플랫폼과 적극 연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임. -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 체계적 조직화 및 협업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원부자재 가격 급등 및 고질적인 인력난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도내 영세 업체들의 자생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조직화 및 강력한 협업 플랫폼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영세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대규모 물류와 브랜딩 비용을 함께 나누어 험난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협상력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협동조합의 운영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담 매니저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신설하고, 단순한 단발성 지원을 넘어 최소 3년 이상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뒷받침과 전문 인력 특례 적용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합의 핵심 공동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고용 창출을 앞장서서 선도하는 핵심 앵커 역할로 자리 잡도록 적극 유도함. - 중장년 중소기업 노동자 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원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중소기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중장년 노동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미래 자금 형성을 든든하게 돕기 위해, 노동자와 중소기업, 관할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월 적립금을 모으는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함. 40세에서 64세 사이의 노동자가 매월 지정된 1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납입금의 세 배가 넘는 2천만 원대 목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파격적인 구조임. · 이 특별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 시스템과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며, 고물가 시대에 중장년층의 무거운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이탈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상생 모델로 평가 받음. 특히 올해 진행되는 2차 모집부터는 그동안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보건업 분야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함.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교사, 구조, 범죱, 예방, 학생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故 현승준 교사 1주기 추모식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교육청이 유가족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추모식을 강행하면서 유가족 및 6개의 교원단체와 심각한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음. · 유가족과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이러한 행보를 보여주기식 행사로 규탄하며, 교육청 정문 앞 도로에서 별도의 자체 추모문화제를 개최함. - 초등학생의 상담교사 무차별 폭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의 정서적 회복 공간인 위클래스 교실에서 상담 지도를 받던 고학년 남학생이 물건을 던지며 상담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함. · 이 사고로 피해 교사는 전신 타박상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교육현장에서의 심각한 교권 침해 및 안전망 부재 문제가 지적됨. - 교육감 후보들의 교권 보호 공약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제주도교육감 후보들이 교사의 기본권 존중과 전문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교권 보호 공약을 일제히 발표함. ·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전담 기구 신설 및 교권보호위원회 통합 운영 등을 약속하며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강조함.
-------	----	---

지역·사회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방산 무단 입산 외국인 관광객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산방산의 일반인 출입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진입하여 길을 잃은 60대 싱가포르 관광객이 소방당국의 야간 수색 끝에 무사히 구조됨. · 헬기와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어 구조가 완료되었으며, 자치경찰은 해당 관광객을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정확한 입산 경위를 조사 중임. - 뇌졸중 의심 해상 조업 선원 긴급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60대 선원이 안면 마비 등 뇌졸중 의심 증상을 보여 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긴급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됨. · 해경은 함정에 구축된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가동해 의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진행함. - 우도 발생 응급환자 해경 야간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시간대 우도보건지소에서 요로결석 의심 증상으로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50대 주민을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긴급 이송함. ·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야간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마치고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환자를 안전하게 인계함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내 아파트를 임대하여 몽골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18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이 경찰의 수사 끝에 적발됨. · 내국인 총책 등 6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으며, 현금 압수 및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와 함께 외국으로 도주한 총책을 적색수배 조치함. - 귀가 중인 10대 소녀 납치 미수범 검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을 폭행하고 강제로 납치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들미를 잡혀 체포됨. · 피해 학생이 기지를 발휘해 범인을 뿌리치고 달아나 부모에게 알렸으며, 출동한 경찰이 범행 1시간 만에 술에 취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함. - 위조 신용카드로 금팔찌 구매한 중국인 구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연동의 한 금은방에서 한국인 명의로 정교하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4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한 30대 중국인 관광객이 구속됨. · 결제 과정에서 수상함을 눈치챈 업주의 빠른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임.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우정청 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경찰청과 제주지방우정청이 좁은 골목길과 주택밀집지역을 매일 순회하는 집배원의 업무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 일상 업무 중 범죄 의심 상황이나 거동 수상자 발견 시 즉각 112에 신고하고 취약요소를 경찰과 공유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합의함. - 학생 안전 위한 통학로 특별 치안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등 타 지역에서 고교생 대상 강력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 불안을 위해 제주경찰이 학교 주변과 통학로 등에서 특별 치안 활동을 전개함. · 가용 가능한 경찰 인력을 총동원하여 취약 시간대를 집중 순찰하고 범죄 예방 시설을 점검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여름철 병원성 비브리오팀 식중독 감시

지역·사회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와 해수 온도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 사업을 적극 추진함. · 도내 해양환경 조사 결과 장염비브리오균이 검출됨에 따라 어패류 취급 시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하며 수산물 관련 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함.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클래스 내 상담교사 무차별 폭행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한 초등학교 내 정서적 회복 공간인 위클래스에서 고학년 남학생이 상담 지도를 하던 교사를 약 30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함. · 학생이 의자를 던지는 등 심각한 신체적 위협을 가해 교사가 상해를 입었으며,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교권 침해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 - 하곳길 10대 여학생 납치 시도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던 10대 여학생을 제주시내 한 빌라 주차장에서 무차별 폭행하고 강제로 납치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신속히 체포됨. · 학생이 다행히 범인을 뿌리치고 달아나 부모에게 위급 상황을 신고하였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발생에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증폭됨. - 통학로 및 학원가 주변 특별 치안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전국적으로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여 학부모들의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제주경찰이 도내 학생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강화함. · 학생들이 범죄의 위협 없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방범 시설을 꼼꼼히 진단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